



‘해다’의 힘찬 울음에서 희망을 본다

간성읍 이종호·양인선 부부 1월1일 첫 아들 준혁 탄생
“새롭게 창간한 고성신문과 같은 해에 태어난 것 인연”

2011년 새해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에서 희망찬 꿈을 안고 태어난 ‘해다’의 힘찬 울음소리가 긴 겨울을 물리치는 봄기운처럼 지역에 울려 퍼졌다.

‘해다’는 갓난아이를 뜻하는 강원도 사투리다. 어원은 ‘그해에 난’을 뜻하는 ‘햇’에 ‘아이’를 합친 ‘햇아이’이며, 이를 줄인 ‘햇아’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고성군의 새해 첫 ‘해다’인 준혁이는 지난 1월1일 간성읍 상리 대명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가족 이종호(34세)·양인선(36세) 부부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지난 3월 첫 임신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백호 태몽을 꾸셨어요. 아이가 음력으로는 백호띠라고 하니 씩씩하게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어요.”

현재 친정인 대전에서 아이와 함께 몸조리를 하고 있는 엄마 양인선씨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도 행복하다”며 “특별하게 바라는 것은 없고 그저 건강하게 자랐으면 한다”고 했다.

간성에서 군인으로 일하고 있는 아빠 이종호씨는 “우리 아이가 새롭게 창간한 고성신문과 같은 해에 태어난 것도 인연인 것 같다”며 “앞으로 고성신문이 지역을 위해 큰일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고성군에서 살고 있는데, 산과 바다 등 자연환경이 사람 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며 “다만 의료 문제 등 생활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 아쉽다”고 했다.

이씨는 “집사람 몸조리가 끝나면 아이가 간성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소아과병원이 없어서 걱정”이라며 “다행히 2015년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하니 반갑다”고 덧붙였다.

준혁이에 이어 1월 3일에는 거진읍 거진리 뉴빌리아아파트에서 최현성 아이(남)가 태어났지만, 1월26일 진해로 이사를 갔다.



2011년 1월1일 태어난 이준혁 아기. 친정인 대전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 엄마 양인선씨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현성이의 어머니 구혜진씨는 이사가기 하루전인 지난 25일 전화통화에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편이 진해로 인사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게됐다”며 “어디에서 생활하던 아이의 고향이 고성이라는 점을 가르쳐주고, 참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말해주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만선의 꿈 키우는 어부의 마음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6일 아침 6시50분께 거진항 앞바다. 밝아오는 여명 속에서 불을 켜고 고기잡이를 하는 어선이 카메라에 잡혔다. 새해 아침, 만선의 꿈을 키우는 어부의 마음을 생각해본다.

박승근 기자

알림

위촉장 수여식·개소식 2월9일

고성신문 객원 논설위원과 칼럼위원 및 시민기자 등 필진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2월 9일 오전 10시30분 간성읍 소재 본사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본사 창간기념식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생략하기로 했으며, 필진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간단한 개소식으로 대신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고성신문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황종국 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5일 까리다스 마테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고성지역 최고령자 윤재남 할머니(107세)를 방문해 설날 선물을 전달하고, 건강을 기원했다.

최광호 기자

지난해 12월 고성을 사랑하는 뜻 있는 분들과 함께 고성신문 창간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그동안 주식회사 설립과 법인등록, 법인사업자등록에 이어 정기간행물 등록 등의 법적 절차를 마치고 마침내 오늘 역사적인 고성신문 창간을 하게 되었다.

먼저 고성신문이 나오기까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과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가까이 귀한 글을 써주시기로 약속한 오피니언 필진 및 읍면 시민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을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함께 일하기로 한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신문

주지하다시피 고성군은 죽왕면 문암리와 간성읍 동호리에서 발굴된 신석기 유적이 증명하듯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던 역사 깊은 고장이다. 고려시대 이후에는 강릉, 양양과 함께 동해안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일제 시대에는 항일 무장투쟁 등 독립운동으로도 명성을 떨쳤던 지역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으로 인해 지금은 비록 남고성과 북고성이 갈라진 상태이지만,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정주의식을 바탕으로 동해안 최북단 어업전초기지로 성장하면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 6만명을 상회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지역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명태 등의 어족자원 고갈과 일자리 부족, 교육 및 의료환경 낙후 등의 원인으로 인구가 점점 줄면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던 거리에는 찬바람만 훑하니 부는 낙후된 고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최근에는 그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던 금강산 육로 관광마저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성신문이 창간된 이유는 '잘사는 고성, 행복한 고성'을 만

들겠다는 사명감 때문이다. 고성신문의 제1 창간이념으로 '행복한 고성 만들기'를 정한 것도 이런 의지의 반영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종교적 차이나 정치적 신념의 '다름' 등으로 인해 결코 차별받아서 안된다. 고성신문은 남녀의 차이, 계층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주민들이 평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성신문은 또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벌써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행정관서의 문턱을 높게만 느끼고 있다. 특히 행정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주민들이 행정에게 바라는 내용들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 입장에서의 가교 역할이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행정의 잘못을 꾸짖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형태의 가교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고성신문은 아울러 '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의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 지역의 감춰져 있는 미담이나 화젯거리를 기사화해 주민들의 자긍심을 살리고, 법과 제도의 한계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는 역할도 해나갈 것이다.

정론직필의 정도 견겠다

고성신문은 발로 뛰는 취재와 공정한 보도 행태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세 가지 창간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신문창간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순수성을 폄훼하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성신문은 이러한 향간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정론직필의 정도를 견어날 것을 다짐한다.

신문에 대한 평가는 오직 지면을 근거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지면에 게재된 기사와 논설 등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문을 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언론이 되겠다.

창간사

발행인 윤승근



행복한 고성 만들기

본지 오피니언 필진 10명 · 시민기자 4명 위촉

김종식 전 동우대 부학장 객원 논설위원 ... 현내면 시민기자 박선애씨

'행복한 고성 만들기·행정과 주민의 가교·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이란 창간 이념으로 새롭게 창간하는 고성신문과 함께 할 오피니언 필진 10명과 읍면별 시민기자 5명이 구성됐다.

오피니언 필진 가운데 객원 논설위원으로는 현재 토성면 용촌1리에 거주하며 경로당 초정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식 전 동우대 부학장과 한성수 경동대 사회복지경영학부 교수 등 2명이 위촉됐다.

칼럼위원으로는 시인이자 현재 죽왕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선국씨를 비롯해 30여년간 고교 교사생활을 하다 최근 고향으로 돌아와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남숙희 시인, 설악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향숙 시인, 최금란 강원미술심리치료센터 소장, 인정리 출신 최기종 경북대 관광학부 교수, 오봉리 출신 정안진 방송구성작가가 위촉됐다.

또 법률 칼럼위원으로는 고성 출신으로 속초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는 박형수 변호사, 증권 칼럼위원으로는 정오영 평택 춘남투자전략연구소 대표가 위촉됐다.

이들 10명의 오피니언 필진들은 앞으로 지면을 통해 지역의 각종 현안 등에 대한 논단과 수필 및 전문지식을 소개하게 된다.

읍면별 소식을 전해 줄 시민기자로는 거진읍 김일용 전 고성 JCI 회장, 현내면 박선애 명파초 직원, 죽왕면 최돈불 고성JCI 감

사, 토성면 강성희 원어민교사 등 4명이 위촉됐다.

고성신문 오피니언 필진과 시민기자는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

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2월 9일 오전 10시30분 사무실

도 수시로 위촉할 계획이다. 한편 오피니언 필진과 시민기

개소식과 함께 진행된다.

최광호 기자



김종식 객원논설위원



한성수 객원논설위원



이선국 칼럼위원



남숙희 칼럼위원



김향숙 칼럼위원



최금란 칼럼위원



최기종 칼럼위원



정안진 칼럼위원



박형수 법률칼럼위원



정오영 증권칼럼위원



김일용 시민기자



박선애 시민기자



최돈불 시민기자



강성희 시민기자

사령(辭令)

편집국장 최광호
취재기자 박승근
총무과장 김창순

이상 1월 20일자

(주)고성신문

간성읍
시민기자
모집합니다

철마는 더 달리고 싶다...고성까지



◇지난해 12월 서울~춘천간 복선전철 개통식에서 위용을 드러낸 고속전철

고성군 국가 차원 교통망 확충 필요

주민들,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기본설계 · 동서고속화철도 고성 연장 제기

동해안 최북단 자치단체인 고성군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 부족으로 '육지의 섬' 처럼 고립돼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 차원의 기간 교통망 확충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재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해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동서고속화철도 등 3개 대형 도로망 확충사업에서 고성군은 제외되거나 계획만 잡혀 있을 뿐 기본설계조차 되지 않아,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소외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동해고속도로는 계획상으로 삼척~양양~속초~고성을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속초~고성 구간 기본설계조차 수립되지 않

은 상황이다. 양양(하조대)~속초 구간은 2015년 12월 개통이 예정돼 있다.

동서고속도로는 서울~춘천~동홍천~양양간 이어지는 고속도로로 지난해 춘천~동홍천 구간이 완료됐으며, 현재 동홍천~양양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고속도로는 양양에서 동해고속도로와 만나 속초까지 연결된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춘천~속초를 연결하는 철도로 지난해 서울~춘천 구간 복선전철은 공사가 완료됐으며, 춘천~속초 구간은 기본설계비 30억원이 새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속초~고성간 연결 계획은 이에 세워지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기간 교통망 확충사

업에 고성군이 소외되고 있는 가운데, 고성 주민들은 동해고속도로의 속초~고성 구간 기본 설계 초기 착수와 동서고속화철도 고성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동해고속도로의 경우 속초에서 고성으로 연결하는 데는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기본 설계 반영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서고속화철도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1일 열린 서울~춘천간 고속전철(복선) 개통식에서 춘천~속초간 건설에 대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2011년 새해 다시한번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철도공단 자체 예산이나 정부 추경 예산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한 뒤 기본 설계용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때 고성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

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훈석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동서고속화철도는 설악권 주민들과 강원도민들의 염원인데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일단 속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악권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며, 그 이후에 고성 연장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군 인근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

명칭	계획구간	비고
동해고속도로	(부산)~삼척~양양~속초~고성	2015년 12월 속초까지 개통. 속초~고성 기본설계 안함
동서고속도로	서울~춘천~동홍천~양양	양양에서 동해고속도로와 만나 속초까지 연결
동서고속화철도	인천~서울~춘천~속초	춘천~속초 기본설계 미반영, 속초~고성 계획 없음

고성신문 주주를 모집합니다

‘행복한 고성 만들기 · 행정과 주민의 가교 · 등산 밑을 밝히는 신문’ 이란 창간이념으로 새롭게 창간한 고성신문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할 주주를 구합니다.

사업목적

- ◇ 신문발행
- ◇ 지역문화 발전
- ◇ 홍보물 기획 · 제작
- ◇ 기타 부대사업

-1주의 금액 : 10,000원
-주권의 종류 : 1주권, 10주권, 100주권

문의 ☎033)681-1667

주식회사 고성신문

고성신문 창간축하메시지

송훈석 국회의원

“고성군의 ‘빛과 소금’ 역할 기대”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고성신문’의 창간을 기다려 온 애독자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辛卯年)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해는 국가적으로도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습



니다. 지혜와 슬기의 상징인 ‘토끼의 해’에는 기쁜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구제역으로 전국의 축산농가의 피해가 심각하고 시름이 깊어가고 있으며, 치솟는 물가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고단해 있지만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이 종식되어 꿈과 희망이 충만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고성군의 밝은 미래를 선도

하기 위해 출발하는 고성신문은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날카로운 견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군민들과 함께 기대하는 바입니다.

고성군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며 출발하는 ‘고성신문’은 ‘행복한 고성 만들기’, ‘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이란 창간이념처럼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성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참 지역언론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합리적인 정책대안 그리고 주민들의 애환을 담아 내는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부드리며, 그 본연의 충실한 언론역할을 독자들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성신문이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간 소통의 광장으로도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언제나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

고 매서운 비판으로 지역사회를 채찍질 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감동있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도 많이 발굴·소개해 살기좋은 행복한 고성을 만들어가는 ‘고성신문’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힘찬 출발을 하는 ‘고성신문’의 발전과 번영을 고성군민과 독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주민들의 사랑받는 신문으로”

김좌훈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장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역사 깊은 고장 고성군에서 지역신문이 창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성신문은 지방 자치 시대와 함께 본격적으로 창간하기 시작한 전국의 많은 지역신문 가운데 후발주자로 창간하게 되지만, 늦게나마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언론이 탄생하게 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고성신문이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성군만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리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성군의 취약



부분을 보완해서 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고성을 발전시키는데 지역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해간다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신문의 역사가 벌써 20여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도 주민들의 의식 속에는 중앙지와 TV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신문이 굳건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자들을 비롯해 신문사의 전 종사자들이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긴 겨울 추위도 다가올 봄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만 있다면 고성신문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성신문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안 제시·사회적 책임 함께 고민”

박효동 강원도의원

고성지역, 지역신문인 「고성신문」이 지역사회에 새롭게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행복한 고성만들기, 행정과 주민의 가고, 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이라는 모토로, 고성의 언론을 트고 자존심을 일깨우는 신문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 국회의 의정연수원 번복, 알프스 리조트 영업중단의 장기화, 동서고속철도 및 동해고속도로 착공 등 굵직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각종 시책과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중앙의 관심은



갈수록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쳐야 합니다. 그 중심에 지역신문이 함께해야 합니다. 생생한 민심의 현장을 기록하고 전달하며, 직언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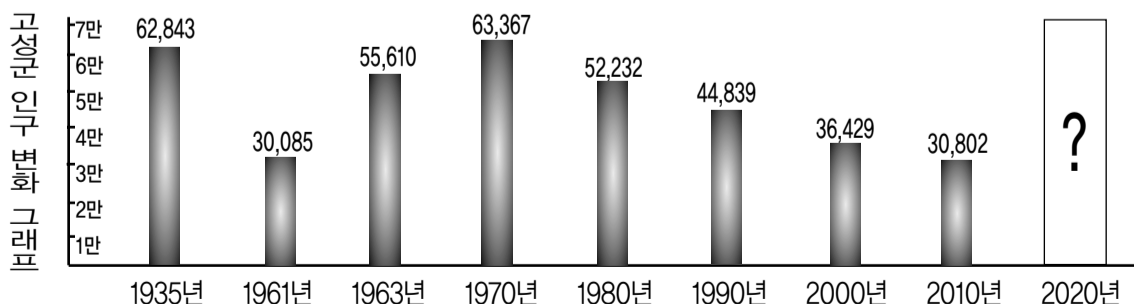
고성의 역사로 기록될 기사가 차곡 차곡 쌓이고, 이러한 순간들을 보면서 만족하며 안주하지 않는, 진중한 지역사회의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서 깊은 고장, 고성 주민들이 애향심과 자부심으로 뭉쳐지고, 통일시대 남북의 뜨거운 숨결과 역동하는 힘찬 맥박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데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고성의 정통성이 되고, 흔들리지 않은 고성의 힘으로 뿌리내려, 지역주민의 굳건한 믿음속에 발전되는 신문이 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고성신문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고성인구 늘리기 고성신문이 앞장서겠습니다

고성군 신규 전입 세대에 고성신문 1부를 1년간(4만원) 무료로 배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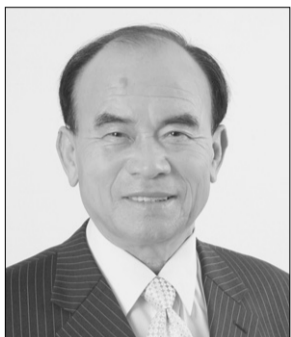


전입세대 무료 구독신청
☎033)681-1667

주식회사 고성신문

고성신문 창간축하메시지

황종국 고성군수



우리 고성지역에 뿌리를 둔 '고성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창간이 있기까지 노력하여 주신 윤승근 고성신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우리지역은 금강산육로

“문화수준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될 것”

관광 중단 장기화와 어획고 부진 등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행복한 고성만들기, 행정과 주민의 가교, 등잔 밑을 밝

히는 신문』이라는 창간이념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고성신문이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갈 매우 소중한 언론매체로서의 역할은 물론, 다양한 지역 소식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문화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다시한번 '고성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지역을 대변하는 구심체로서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높이고 미래발전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심어주어 사랑과 신뢰속에 더욱 큰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조리 감시·경제활성화 기여”

문명호 고성군의회 의장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신문인 고성신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고성신문 창간에 애쓰신 윤승근 고성신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차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일수록 지역 언론이 발전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일간지는 70여개에 달하고 주간지까지 합하면 수백 개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신문이 비록 아직 든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지역주민



들의 입장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지역 언론이 확산되어 왔고, 중앙지나 지방일간지에 비해 훨씬 더 주민들의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밀접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첨단화,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간이 우선적으로 찾는 뉴스는 세계에 관한 뉴스가 아니라 지역과 그 주변에서 일어난 뉴스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고성신문 창간은 지역주민 상호간 정보와 의견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의 개혁과 발전을 앞당기고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지역 민주화를 발전시킬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 고성신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어, 지역사회의 성원을 받는 지역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희망의 메시지 담아 전해주길”

임승환 고성교육장

산·호수·바다 내음이 가득하여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 지역에 언론의 불모지인 고성지역의 염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간준비에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고성신문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과 어획량 감소, 구제역 발생 등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고성군이 몇 단계 더 도



약할 수 있도록 고성군민이 진리를 밝은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대변해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교육이 사랑·나눔·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전해주시고, 아울러 군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소통을 함께 나누는 고성신문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관군 모두 인화단결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여줌으로써 하나되는 통일 고성의 초석을 마련하여 주시고, 마음 따뜻한 소식들로 충만하여 영북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를 대변하는 고성신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성신문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고성신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성숙된 사회만들기 노력”

이용완 고성경찰서장

안녕하십니까, 고성경찰서장 총경 이용완입니다. 먼저 고성신문 창간을 고성경찰서 전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적 향상과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성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고성 만들기, 행정과 주민의 가교, 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이라는 이념



아래 창간하는 고성신문은 우리 사회의 밝고 따뜻한 얘기를 담아내고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건강하고 성숙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즘처럼 사회가 어수선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주민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언론으로써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고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통해 여론을 하나로 집결하여 새로운 고성군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고성신문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신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창조적 대안 찾는 중심 역할해야”

황연인 고성문화원장

지혜와 풍요의 상징 토끼의 해인 신묘년 정월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는 고성신문의 창간에 문화원 가족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의제를 선정하고 이끄는 데 언론만큼 영향력 있는 주체가 없다고 봅니다. 언론이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공정하고 책임있게 제시하고 우리군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 할때 우리 고성의 미래 과제들도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은 지금 활기차고 살기좋은 미래의 고성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조업, 관광·레저산업 분야의 민간자본 투자유치,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 해양심층수 개발 등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문화, 환경, 주거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고성군과 민간단체 등 각계 각층이 머리를 짜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는 지역 스스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언론, 주민사회가 함께 비전과 전략을 내 놓고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창조적 대안을 찾아내고 협력관계를 만들어 내야 하며 그 중심적인 역할을 지방언론이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신문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큼니다. 생생한 지역 밀착형 이웃 소식을 전달하는 물론 공정한 공론의 장 역할로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여 풀뿌리 언론으로서의 큰 역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창간에 애쓰신 윤승근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고성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논 소득기반다양화사업 참여농가 신청 접수

고성군은 쌀수급 안정과 타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2월 21일까지 20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참여농가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자는 2010년 쌀소득 등의 변동직접지불금 대상 논에 2011년부터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와 2010년 논농업 다양화사업에 참여한 농가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한 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최광호 기자

고성출신 이화길씨 농업경영인 도 회장에

고성 출신 이화길씨가 한국 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농업경영인도연합회는 지난 25일 오후 춘천 우두동 도농업인 단체회관 2층 선관위 사무실에서 부재자 투표로 실시된 임원선거 결과 이화길씨(48세, 사진)가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화길 신임회장은 고성고를 졸업하고 강원대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한농연 고성군연합회장과 고성군 농정심의위원을 역임했다.

이화길 회장은 “구제역 여파로 축산업계의 피해가 심해 농가들의 어려움이 큰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부에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단체와 연대를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구독·광고 문의
☎681-1667

설 제수용품은 재래시장에서

간성·거진시장 값싸고 질 좋은 상품 많아... 기관단체 장보기 운동 전개

고성군은 설을 앞두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전통시장 상권회복을 위해 고향의 향수와 후한 인심이 가득한 전통시장에서 명절 준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유관기관·단체, 공무원 등이 출선수범해 전통시장 이용을 실천하고, 주민들에게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군수와 부군수를 비롯해 실과소장 및 직원, 유관기관·단체 등이 26일 거진시장과 27일 간성시장을 직접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에 발맞춰 간성·거진 전통시장 상인회는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값싸고 질 좋은 제수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상품권 이용고객에게는 텀주기 행사도 전개한다.



간성 장날인 지난 27일 고성군청 공무원 등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간성 전통재래시장을 찾아 장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승근 기자

한편 고성군은 지난 17일부터 2월1일까지 제수용품과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개인서비스 대책을 주찬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내 사람 심기’ 인사 감사한다

행안부 2011년 감사계획 발표... 토착비리 개연성 높은 사무 중점감사

정부는 2011년부터 단체장의 ‘내 사람 심기’ 승진·전보 행태와 단체장·지방의회·언론 등과 밀착된 계약체결 또는 특정인을 의식한 예산지원 등 토착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무에 대해 중점 감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공정사회 조성을 위한 ‘중앙·지방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토착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1

년도 감사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제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적 처벌을 타파하고 엄정한 일벌백계 처벌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징계혐의가 명백한 자를 인사위원회에서 가볍게 징계한 경우 반드시 관할 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을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 또는 자치단체가 경고 처분을 받으면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처분내용과 이행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친서민 정책관련 행정처리를 지연하거나 소외계층에 대한 보조금 집행 등의 적정성 여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 감사한다.

박성일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감사관은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책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한 공무원 발굴해 포상하는 등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해양심층수로 만든 ‘고성태’ 판매

포장재 포함 10마리 만원... 숙취해소 탁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해풍건조복어인 ‘고성태’가 지난 26일부터 명태건조장 조성 시범운영 단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고성태’는 냉동명태를 해양심층수에 20~30시간 동안 담가 해동한 후, 할복해 건조틀에 걸어 40~60일동안 해풍으로 말리면서 다시 3~5회 가량 해양심층수를 뿌리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성태’는 일반수돗물을 사용한 복어보다 마그네슘 성분이 1.5배, 숙취해소 및 독소를 배출하는 함황 아미노산 성분이 5배 정도 높고 동물임상실험결과 ALDH성분을 더 활성화·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숙취해소에 탁월한 것으로 입증됐다.

‘고성태’의 가격은 포장재를 포함해서 10마리당 1만원이다.

최광호 기자



지난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4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심층수 산업발전 협의회가 열렸다. 박승근 기자

고성문학회 2월말 창립 총회

발기인 모임 갖고 회원 모집 나서

고성지역 문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성문학회가 2월 말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고성문학회는 최근 창립 발기인 모임을 갖고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거나 고성 출신으로 타지에서 활동하는 문인 및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기로 했다.

발기인으로는 이선국 시인(죽왕면장)을 비롯해 김향숙 씨 등 7~8명의 문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의 연회비는 5만원이며, 지역에서 개최되는 정례 모임과 지역 문학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이선국 고성문학회 발기인 대표는 “고성문학회 결성으로 그동안 개인적인 작품활동과 습작을 해 오던 문인들의 산실이 만들어져 지역문에 진흥과 향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지역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018-215-2425>

최광호 기자



지난 20일 새해 들어 처음 열린 고성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군의원과 실과소장 및 방청객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박승근 기자

고성JCI 33대 회장에 박정훈씨

최준헌씨 상임부회장...29일 회장단 이취임식



지난 13일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회장단이 인사를 하고 있다.

고성청년회의소(JCI)는 지난 13일 제72차 임시총회 열고 박정훈 상임부회장을 제3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선 또 최준헌 상임부회장, 윤창수 내부부회장, 박대중 외부부회장이 선출됐으며, 감사로는 최영환, 최돈불 씨가 당선됐다.

박정훈 당선자는 “청년회의소의 자긍심을 갖고 회원간의 단결과 화합, 지역의 봉사활동 및 내실을 강화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성청년회의소(JCI)는 29일 낮 12시 고성종합체육관에서 회장단 이취임식을 가졌다.

박승근 기자

“어려운 이웃 삶 향상 노력”

고성군사회복지협 최근성 회장 취임

고성군 사회복지협회의회는 지난 21일 거진읍사무소 3층회의실에서 정기총회 및 제3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가졌다.

‘사회복지인이 꿈꾸는 복지사회를 소망하며’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제3대 회장으로 최근성씨(사진)가 취임했다.



최근성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협의회 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고성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열려

황군수 새해인사·실과소별 업무보고... 조례안 2건 가결

고성군의회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2011년 새해 들어 첫 임시회를 열었다.

고성군의회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0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황종국 군수로부터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또 21일부터는 각 실과소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병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군의회가 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기대에 부

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의회는 군민과 함께 희망을 키우고 미래를 열어가는, 모든 군민이 행복한 고성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재경고성군민회 지승연 회장 연임

2011년 정기총회... ‘자랑스런 고성인상’ 시상

재경 고성군민회(회장 지승연)는 지난 22일 오후6시30분 서울 마포 엠펠리스웨딩부페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원 만장일치로 제7대 지승연 회장을 8대 회장으로 재선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행발전을 위해 노력한 신기현 고문, 김동식 고문, 전치운 고문, 김두남 고문, 도한술 고문, 최을규 수석고문 등에게 고성군수상이 수여됐다.

또 유재명 전 재경거진중·고종동문회장에게 공로패가, 이선국 죽왕면장과 노승열 프로골퍼에게는 자랑스런 고성인상이 수여됐다.

이밖에 재경고성군민회 자녀인 최미영 등 6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날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

다.

△고문단 : 송기성, 김동식, 김영철, 전찬배, 신기현, 윤태진, 하광운, 최태욱(‘고성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내외귀빈 : 송훈석 국회의원, 황종국 고성군수, 문병호 고성군의회 의장, 박효동 강원도의원, 함명준 고성군의원, 한봉기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김주환 세계권투

평의회 부회장, 김일용 고성군산림조합장, 이영일 고성군변영회장, 신상복 강원도민회 사무국장, 김영환 미수복 장전읍민회 회장, 박광근 한국자유총연맹고성군지회장, 김정래 대한지적공사 고성군지부장, 최인선 고성군청 자치행정과장, 손문영 재경속초시민회장, 이명래 전 재경양양군민회장, 최종표 재경인제군민회장, 황래열 재경평창군민회장, 윤병건 재경양구군민회장.

박승근 기자



지난 22일 서울 마포 엠펠리스웨딩부페에서 열린 재경고성군민회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 하례식에서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돌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여당당

여성NEWS

여성이 바로 서야 고성이 산다

여당당.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다.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세상!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사회”



뜨개 배우며 육아상담하는 엄마들의 '아지트'

간성읍 '솔이는 뜨개쟁이' 운영 송도연씨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 우울증이 심해 태교 차원에서 배웠는데, 이제는 직업이 되었네요. 또래 엄마들을 만나 육아상담도 하면서 아이들 학원비도 벌고 있어요.”

간성읍 전통재래시장 인근에서 '솔이는 뜨개쟁이'를 운영하고 있는 송도연씨(37세)는 3명의 자녀를 둔 엄마다. 가게 이름은 새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큰 딸 김눈솔과 3학년이 되는 둘째 딸 예솔이의 이름에서 따왔다.

송씨가 운영하는 4~5평 남짓한 가게는 규모는 비록 작지만, 입소문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하루에도 수십명의 엄마들이 찾아오는 '아지트'와 같다.

경기도 광명시가 고향인 송씨가 고성군으로 전입온 것은 지난 1999년. 25세의 나이에 결혼한 그녀는 결혼 직후 부사관인 남편과 함께 고성으로 이주했다.

송씨는 고성으로 이주한 뒤 그

동안 보험설계사부터 우유배달까지 다양한 일을 해왔다. 남편이 군인이라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도 당당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솔이는 뜨개쟁이'의 주요 고객은 10대 초등학교생부터 70대 어르신들까지 다양하다. 주요 수입은 실 판매와 주문제작 판매 등이며, 강습비는 무료다.

송씨는 대바늘, 코바늘, 손뜨개 등을 다 할 수 있지만,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대바늘 뜨개라고 했다. 특히 대바늘로 만든 가디건과 조끼, 워머 등은 잘 팔려나간다.

12년째 고성에 거주하며 고성 사람이 다 된 그녀는 의료나 교육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고성에서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했다.

“대도시에서 자란 제게 고성은

포근한 어머니의 품처럼 정이 넘치는 고향으로 다가와요. 공기도 맑고, 산과 바다 호수 어는 것 하나 없는 게 없잖아요. 아이들 키우기에도 더없이 좋은 것 같아요.”

송씨는 그러나 “소아과나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 엄마들이 많이 불편해 한다”며 “특히 차 없는 엄마들은 자녀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새해에 막내 건우가 초교 1학년 입학하면 3명의 자녀 모두 간성초교에 다니게 되는 그녀는 그래서인지 특히 자녀들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고성이 대도시에 비해 학교시설은 더 좋고, 학원비도 저렴하지



'솔이는 뜨개쟁이'를 운영하는 송도연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뜨개질을 선보이고 있다.

만 교육적 뒷받침은 다소 부족한 것 같아요. 놀이시설이나 문화위락시설도 부족하고요.”

자녀 교육을 위해 강릉 참소리 박물관까지 가봤다는 송씨는 최근 고성지역에도 여성회관과 고성도서관 등이 생겨나면서 엄마들이 생활하기가 그나마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지금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남편 김창열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빼놓지 않았다.

“뜨개질 배우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남성분들도 환영해요.”

최광호 기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엄마표 간식'

자녀를 둔 가정주부는 긴 겨울방학동안 자녀의 건강식 챙기기로 고민이다. 인스턴트식품이 풍부해져 다양한 먹을거리가 있지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역시 '엄마표 간식'이다. 만들기 쉽고 영양이 풍부하면서 아이들의 입맛도 끌 수 있는 '엄마표 간식' 만들기에 도전해 보자.

◆프렌치토스트

-재료 : 식빵 4쪽, 식용유 또는 버터, 달걀물(달걀 2개, 유유 반컵, 설탕 조금, 소금 조금, 파슬리가루 조금).



-만들기 : ①그릇에 재료를 다 넣고 고루 섞는다 ②식빵을 한 개씩 달걀물에 적신 뒤 달군 팬에 구우면 된다.

◆감자팬케이크

-재료 : 감자 큰 것 2개, 양파 반개, 소금과 후추가루 조금, 식용유, 파슬리 조금(없어도 됨).



-만들기: ① 감자와 양파를

가늘게 채 썰어 소금으로 간한 뒤 10분간 둔다. ②10분 후 후춧가루와 파슬리 가루를 넣고 한번 더 버무려 준다 ③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약간 도톰하게 모양을 만들어 약한 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준다.

◆단호박 구이

-재료 : 단호박 반개, 밀가루 3숟갈, 달걀 1개, 소금, 식용유, 계피가루(없어도 됨).



-만들기 : ①단호박을 찜통에 익힌 뒤 단호박의 속씨를 제거하고 6등분으로 쪼갠다 ②썰어놓은 단호박에 소금을

살짝 뿌린 뒤 밀가루를 입힌다 ③달걀을 입힌 뒤 팬에 노릇하게 지져낸다. 뜨거울 때는 계핏가루를 솔솔 뿌려주면 된다.

◆고구마샐러드

-재료 : 고구마 2개, 다진 당근 2숟갈, 다진 양파 1숟갈, 꿀이나 설탕, 우유 적당량, 마요네즈 2숟갈, 소금 조금.



-만들기 : ①고구마를 삶아서 껍질을 벗겨 얇은 그릇에 넣고 손가락으로 으갠다 ②맛의 달기와 되기는 꿀(설탕)과 우유로 조절해 주면서 나머지 재료들을 함께 버무려주면 된다.

최광호 기자

외국 설 음식은 뭐가 있을까

고성군건강가정지원센터 '일본음식 맛보기' 개최



지난 19일 고성군여성회관 2층 강의실에서 '일본 음식 맛보기' 행사가 열렸다.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최완식)는 지난 19일 고성군 여성회관 2층강의실에서 10여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 음식 맛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셋째주 수요일 '가정의 날'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는 다문화여성 3명이 강사로 나와 가족과 함께 일본음식인 오코노미야끼(부침개)를 직접 만들어 맛보는 시

간으로 운영됐다. 전연미 가족친화 문화조성팀 담당자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를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이날 행사는 설날을 맞아 외국의 설 음식이나 유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박승근 기자

간성읍

간성읍은 법정리 17개 행정리 33개리 116개반을 형성하고 있다. 총면적은 179.95km²이다. 그리고 주민 미거주지역인 수동면의 면적은 144.07km²이다. 남천과 북천 유역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 경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하리(리,2리), 신안리, 동호리, 봉호리, 상리, 간촌리, 교동리, 해상리, 광산리, 어천리, 장신리, 탑동리, 금수리, 진부리, 흘리, 탑현리로 구성되어 있다.

※간성읍에서 발생하는 아기자기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민기자를 모집한다. (문의 : 681-1666)

해상 2리 농촌건강 장수마을 지정

지난 21일 마을회관서 사업설명회 개최 ... 3년간 연5천만원씩 지원

간성읍 광고모집
☎681-1666~7

간성읍 해상2리(이장 김동수)가 고성군에서 다섯번째로 농촌 건강장수마을로 지정됐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1일 해상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건강 장수마을 지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0%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선정된 마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고품질 문제 대응 및 노년생활문화 기반 조성사업비로 3년간 연 5,000만원씩을 지원한다.

김동수 이장(54세)은 “농촌 건강장수마을로 지정된 것에 대해 관계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마을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사업 시행에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

다”고 말했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 함명식 농촌지원식품 담당은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가지 아이템을 개발해 사업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수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현재 고성군에는 간성읍 장신리, 거진읍 대대1리, 현내면 마달리, 토성면 신평1리 등 4개소가 농촌 건강장수마을로 지정돼 있다.

박승근 기자



지난 21일 해상2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농촌 건강 장수마을 지정 사업설명회에서 함명식 담당이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읽고난 고성신문은 이웃과 함께 보세요

쇠고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드시는 것이 긴급방역으로 어려운 축산농가를 돕는길입니다.

구제역 바이러스와는 상관없이 ...
쇠고기,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 1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 구제역은 각종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과는 다르게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즉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닙니다.
 - 그러므로 구제역에 걸린 소, 돼지를 옆에 가더라도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은 0%입니다.
- 2 오염원은 모두 살처분·매몰 조치됩니다!**
 - 구제역에 걸린 소나 돼지 등 우제류는 전부 살처분 매몰되고, 도축장에서는 질병 우려만 있어도 도축을 하지 않으며, 도축시 수의사가 임상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구제역에 걸린 고기는 유통이 될 수 없습니다.
- 3 만약에 구제역 걸린 가축의 고기를 먹었다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소, 돼지 등의 가축은 도축 후 예냉 과정에서 고기가 숙성되며, 그 과정에서 그 고기의 산도(pH)가 낮아지므로 고기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자연 사멸됩니다.
 - 그리고 구제역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50℃ 이상에서 사멸) 요리하는 과정에서 사멸됩니다. 구체적으로 56℃에서 30분, 76℃에서 7초를 가열하면 사멸합니다.

Lively Gangwon 강원도

제5기 위원장에 이호철씨

간성읍 주민자치위원회 총회 개최



지난 18일 간성읍사무소에서 간성읍 주민자치위원회 총회가 열렸다.

간성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8일 간성읍사무소 2층 다목적실에서 총회를 열고, 제5기 위원장으로 이호철씨를 위촉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4기 정문식 위원장과 손미자 사무국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 정문식 직전위원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부위원장으로 김

동기·손미자씨를 위촉했다. 사무국장인 김재영씨가 임명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4기 정문식 위원장과 손미자 사무국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박승근 기자

거광전력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기탁



간성읍 상리 소재 거광전력통신공사(대표 김동집)는 지난 21일 고성군을 방문해 희망 2011 나눔 캠페인 성금으로 300만원을 기탁했다. 박승근 기자

거진읍

거진읍은 법정리 17개리 행정리 28개리 152개반을 형성하고 있다. 총면적은 68.63km²이다. 동해안 최북단의 전진항구를 갖고 있는 거진항이 있으며, 화진포를 접하고 있어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해 개발여지가 지역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 거진리, 자산리, 봉평리, 화포리, 원당리, 송정리, 용하리, 산북리, 송강리, 석문리, 초계리, 오정리, 대대리, 송죽리, 반암리, 송포리, 냉천리, 장항리로 구성되어 있다.

▶거진읍 시민기자 김일용(dragon4858@hanmail.net)
*거진읍에서 발생하는 아기사기하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민기자를 모집한다. <문의 : 681-1666>

거진읍 LNG 공급 다소 늦어질 듯

2015년 간성 주배관 도착 후 간성읍·토성면 우선 공급... 리솜리조트 공사 등 변수

거진읍 광고모집
☎681-1666~7



거진읍번영회 정기총회

거진읍번영회(회장 윤종우)는 지난 14일 오후 번영회 사무실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학사업을 확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2015년 고성으로 보급되는 천연가스의 거진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식경제부가 2015년까지 고성지역에 천연도시가스(LNG)를 보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주배관이 간성읍까지만 도달해 간성 이북인 거진읍과 현내면은 도시가스 공급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고성군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주배관 연결 공사의 종착지는 간성읍이 되고, 이후 지역 가스업체가 간성을 기점으로 수요량 및 수지타산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가스배

관을 설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지난 19일 전화통화에서 "어디까지 도달할지 세부라인은 아직 설계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아마도 라인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간성이북까지 메인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로망과 압력저하 등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해 시뮬레이션을 한 뒤 주배관이 설치될 것"이라며 "주배관 도달

이후 각 가정으로의 공급은 지역 가스업체가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고성군 경제도시과 지역경제담당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가 시행하는 주배관(도매배관)은 간성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소매배관 배급은 참빛도시가스에서 수지타산과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화진포에 리솜



거진 당포항 전몰장병 추도식

거진 당포항 전몰장병 추도식이 지난 19일 오전 11시 거진 충훈탑에서 황종국 군수 등 기관단체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열렸다.

박승근 기자

리조트가 들어서는 등 큰 수요가 생길 경우 인근 지역까지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요량 증가 등 여건만 조성되면 거진읍과 현내면에도 언제든지 가스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속초·고성·양양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참빛도시가스 관계자는 "메인이 도착하는 2015년에 간성을 전역에 보급되는 것은 아니며, 간성읍만도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후 간성을 기점으로 대형 리조트 등이 많은 토성면쪽으로 보급하고, 그 후 간성 이북지역으로 라인이 연결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말 한국가스공사가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LNG 주배관의 고성군 고성 연장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하는 등 강력 항의했었다.

최광호 기자

●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문) 을은 7년 전 서적 판매업체로부터 책을 구입하면서 40만원을 그 해 7월1일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한 이후 완납하지 못하던 중 최근 판매업체로부터 잔금 2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매업체의 청구에 응하여야 하는지와 만일 불응한다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지요?

답)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체국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채권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

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용되고,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에서 우편내용과 발송일지만 증명해줄 뿐이고,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대로 이행

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고, 형사상 사기죄와 같은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매매계약 등을 한 경우에 성립되고, 위 사안과 같이 계약 이후 매수인의 금전사정이 어려워져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 사안과 같은 책값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귀하가 판매업체에게 책값 채무는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판매업체의 잔금 청구권을 소멸되었다고 항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형사 책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박형수 법률칼럼위원 약력

- 고성고 24회 졸업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박형수 법률사무소 대표

현내면

현내면은 법정리 10개리 행정리 16개리 80개반을 형성하고 있다. 총면적은 90,24km²이며, 북위 38° 30' 00"을 기준으로 대진리 앞바다에 어로운계선이 지나고 있다. 동해안 최북단 접적지역으로 통일전망대와 화진포를 소재하고 있어 관광개발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대진리, 철통리, 죽정리, 산학리, 화곡리, 마달리, 마차진리, 명파리, 배봉리, 제진리, 사천리, 검장리로 구성되어 있다.

▶현내면 시민기자 박선애(sarang365@nate.com)
 ※현내면에서 발생하는 아기자기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민기자를 모집한다. (문의 : 681-1666)

최대수 중대장 보국훈장 광복장

향토예비군 육성 통해 국가발전 기여 ... 현역·예비군 포함 40년 군생활

현내면 향토예비군중대 최대수 전 중대장(60세)이 지난해 12월31일 8군단에서 명예로운 퇴임식을 갖고, 25년간 향토예비군 육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상했다.

최대수 전 중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비군부대로 불우 이웃 거주지 지붕개량 사업 일손 돕기 등 각종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민·관 유대 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투철한 안보교육을 통해 예비군들에게 안보의식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켰으며, 향토 방위작전 수행체계 확립에도 기여했다.

최 전 중대장은 이와 함께 향토예비군 동원을 위한 평시 준비체계 확립, 주민신고 홍보 활동 및 지역내 향토예비군과의 유대관계 개선, 방위지원본부 운용 활성화에도 노력을 해 왔다.

평소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그는 신앙심 또한 깊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데도 앞장서 왔다.

최 전 중대장은 병으로 군에 입대했다가 9개월 뒤에 3사관학교에 입학해 소위로 임관한 뒤 16년5개월간 군생활을 하다 대위로 예편했다. 이어 24년 9개월 동안 현내면예비군중대장을 맡는 등 총 40년 4개월간을 군에 몸 담았다.



현내면향토예비군중대 최대수 전 중대장이 향토예비군 육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보국훈장 광복장을 들여보이고 있다.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온 그는 “국가에 대한 보답 또한 국민에 대한 사랑이라 생각한다”며 “지역 내 봉사활동도 지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대수씨는 제2의 고향인 현내면에 대해 자긍심과 자량이 대단해 지역 알리기에 앞장서 왔다.

새해 1월1일부터 신임 현내면

예비군 중대장을 맡고 있는 고향민 중대장(47세)은 “최대수 중대장의 뒤를 이어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현내면 예비군중대장으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향토방위작전 및 지역주민과 융화된 민·관·군 통합방위, 향토 방위 작전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 청년협의회 박승로씨 5대 회장에 재추대

현내면 죽정리에 서 박포수가든을 운영하는 박승로씨가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 청년협의회 회장으로 재추대됐다.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청년협의회는 지난 20일 춘천시 소재 자유총연맹 도지회 자유회관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박씨를 제5대 회장으로 재추대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선출에 이어 2011년도 사업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박승근 기자

현내FC 축구회 2011년 정기총회 개최



현내FC 축구회(회장 하용준)는 지난 15일 오후 금강산콘도 소연회실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현내FC 축구회(회장 하용준)는 지난 15일 오후 금강산콘도 소연회실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구연(56세), 박승로(49세)씨가 새 감사로 선출됐다. 감사 임기는 2년이다.

박승근 기자



지난 13일 금강산콘도 금강홀에서 열린 대진가족한마음축제에서 원생들이 재롱을 부리고 있다.

“작은 천사들의 재롱잔치”

대진어린이집 ‘대진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겨울의 한복판에 들어서며 몸과 마음에 서늘함이 느껴지는 때, 대진어린이집에서는 작은 천사들의 축제인 ‘대진가족 한마음 축제’가 열렸다.

지난 13일 금강산콘도 금강홀에서 ‘꿈을 드립니다. 희망을 드립니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축제는 따뜻함과 훈훈함을 나누기 위해 대진어린이집 가족 및 지역주민을 모시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솜씨를 뽐낼 만큼 크게 크게 자란 작은 천사들에게, 대진어린이집 가족 및 지역주민 모두는 힘찬 박수로 격려와 사랑을 보냈다.

대진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언제나 지켜봐 주시고 사랑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가정에 사랑과 평안함이 가득 넘치기를 함께 기원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선애 시민기자

죽왕면

죽왕면은 법정리 12개리 행정리 17개리 74개반을 형성하고 있다. 총면적은 49.10km²로 태백산맥의 주봉인 설악산과 연결돼 있다. 해안을 접하고 있어 송지호·삼포·봉포 해수욕장 등 많은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 오호리, 향목리, 가진리, 공현진리, 오봉리, 삼포리, 인정리, 구성리, 아촌리, 송암리, 문암리, 마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죽왕면 시민기자 최돈불(choi3789100@hanmail.net)

※죽왕면에서 발생하는 아기자기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민기자를 모집한다. <문의 : 681-1666>

퇴임 이장 3명에 금반지 전달

죽왕면 17개리 이장회의 ... 노인안질환 시술사업 등 현안 논의



죽왕면사무소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17개리 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죽왕면사무소(면장 이선국)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17개리 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을발전을 위해 활동하다 퇴임한 구성리

정병익, 송암리 김영학, 삼포리 어준기 이장에게 금반지를 전달했다.

이들 3개 마을의 새 이장으로 는 구성리 김운영, 송암리 김기현, 삼포리 어기범씨가 각각 선출됐다.

이날 이장회의에서는 2011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모집, 저소득층 노인안질환 무료시술사업, 논벼 대체작목 시범단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승근 기자

주민자치센터 상반기 수강생 모집

죽왕면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상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도자기공예 등 14개 과목이며, 수강생 모집이 저조한 강좌는 폐지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일부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운영기간은 2월7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들은 면사무소 총무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680-3642>

최광호 기자

프로그램	모집인원	횟수	교육장소
도자기공예	20	주2회	김하인아트홀
분재	20	주1회	소회의실
서예	20	주1회	소회의실
사물놀이	20	주1회	소회의실
한글교실	20	주1회	소회의실
댄스스포츠	20	주2회	다목적실
멧돌체조	20	주2회	마을경로당
요가	20	주2회	다목적실
탁구교실	10	연중	다목적실
자전거트래킹	80	월1회	관내 관광지
방과후교실	10	평일	독서실
정보화교실	월8명	월1주	정보이용센터
군인가족대상(추후협의)	20	주2회	다목적실
왕곡마을 짚풀공예	마을주민	주1회	마을회관

사진으로 보는 한 주간 소식



보건소 위생관리 점검 고성군보건소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설대비 성수식품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했다.



12월 으뜸봉사단체 시상 '12월의 으뜸 봉사단체'로 고성군 여성자율방범대(회장 이정순)가 선정돼, 지난 19일 군청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축구연합회 정기총회 고성군 축구연합회(회장 윤승근)는 지난 21일 오후 4시 거진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속초연탄은행 연탄전달 고성군은 지난 21일 속초연탄은행으로부터 사랑의 연탄 5천장을 기탁받아 5개 읍면 26개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했다.



사회복지협 연탄전달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근성)는 지난 26일 삼성생명 고성지점과 함께 간성지역 10가구에 사랑의 연탄 각 200장씩 총 2천장을 전달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정총 고성군 시각장애인연합회(지회장 오매자)는 지난 26일 고성문화원 1층 영상자료실에서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토성면

토성면은 법정리 16개 행정리 33개 130개반을 형성하고 있다. 총면적은 119.74km²이다. 1991년 세계장애비야영대회를 신평리(新坪里)에서 개최함에 따라 대대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세계 속의 한국을 부각시키는 약속의 땅으로 각광 받고 있다. 천진리, 청간리, 아야진리, 교암리, 백촌리, 운봉리, 학야리, 도원리, 성대리, 용암리, 신평리, 인흥리, 성천리, 원암리, 용촌리, 봉포리 마을이 있다.

▶토성면 시민기자 강성희(ruthcanada@hanmail.net)
 ※토성면에서 발생하는 아기자기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민기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681-1666)

“동문 화합 위해 열심히 뛰겠다”

천진초 제5대 이춘우 총동문회장 취임 ... 동문회 발전기금 조성 노력

1925년 설립돼 올해로 8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천진초등학교 제5대 총동문회장에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출신인 이춘우씨(사진)가 취임했다.



1일 천진공립학교로 설립했으며, 1951년 수복후 천진국민학

교로 개교했다. 지난해까지 74회의 졸업생 총 5,691명을 배출했다.

수복 후 7회, 전체 25회 졸업생인 이 회장은 동광고와 속초고를 거쳐 동우대를 졸업했다. 1968년 공직에 입문해 고성군 자치행정을 역임하고, 2008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기획감사실장을 끝으로 4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현재 고성군 궁도연합회장을 맡고 있으며, 가족은 부인 임덕춘씨와 1남1녀. 최광호 기자

지난 29일 토성복지회관에서 취임식을 가진 신임 이춘우 총동창회장은 “동문회 화합과 단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이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문회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모교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천진초등학교는 1925년 4월

토성구장서 축구팀 친선경기



겨울철 동계훈련 최적지로 손꼽히는 고성군에 올 겨울 들어서도 프로팀, 대학팀, 중고팀 등 10여개팀 400여명이 동계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토성구장에서 대구FC팀과 함멜실업축구팀이 친선경기를 펼쳤다. 박승근 기자

시민기자 수필

“행복의 시작에 바로 ‘학교’가 있었다”

부모가 되어서 자기 아이를 염려하고 그 아이의 장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레 우리나라 마음일 것이다. 특별히 아이가 아직 어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엔 더욱더 그 아이를 위한 최선의 환경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부모라 해서 미리 앞날을 점칠 수는 없는 것이니,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아이를 위해 어떤 길을 대신 결정해야 하는 건 버거운 책임이요, 그만큼 엄숙한 문제일 것이다.

토론토 대학에 연구원으로 가게 된 아빠를 따라 세 살에 캐나다에 갔다가 열 한 살 된 딸아이를 다시 한국에 데리고 올 결정을 했을 때가 바로 그러한 선택의 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를 그곳 교육을 받고, 4학년부터는 캐나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험을 합격한 상태여서, 사실 우리의 결정을 들은 지인들은 한번 더 생각해보라며 만류하곤 했다. 그래도 ‘더 늦기 전에’라는 마음이 더 강했던 건, 아이가 나중에 자라 자기의 정체성을 놓고 고민하게 될 때, 당당히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려면 한국의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서였

“아이들이 배우는 창의성과 자율성도, 학부모와 교사의 긴밀한 연계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느낀다”

다. 원주에서 1년을 4학년, 안양에서의 1년을 5학년에 아이를 보내면서 우리는 외국인학교도 대안학교도 아닌 일반 공교육 속에서 아이가 한국에 적응해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걸로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아이는 점점 말도, 웃음도 잃어가기 시작했다. 물어봐도 그냥 학교가 재미없다는 말만하고 받아오는 상이 ‘질서상’, ‘다독상’, ‘바른 어린이 상’ 등인 걸 보면서 학교에서 말없이 책만 보는 아이의 모습이 연상되어 마음이 아팠다. 그 때 우연한 기회에 영랑동에 있는 승마장을 알게 되었다. 캐나다에서 한 8개월 말 타는 걸 배웠던 아이에게 좋은 선물이 되겠다 싶었던 건 그곳이 다른 승마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서 2007년 여름, 친한 고등학교 친구 집에 아이를 두주 머물게 하면서 승마를 보냈는데, 그 때 친구를 통해 지금의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초등학교를 알게 되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너무나 재미있어 해서 아이 가진 엄마로서 참된 행복을 느낀다는 말을 듣고 그 해 12월을 체험학습으로 왔다가 6학년 때 아예 전학을 하게 되었다.

그 때 전교생이 21명인 학교는 하나의 가족과 같이 지냈다. 1학년 시험 문제에 쉬는 시간에 바른 행동을 한 어린이를 찾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구된 답은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음 시간 공부를 준비한다였다. 그 외 답으로 제시된 것들이 운동장에서 논다, 옆 반에 가본다, 장난감을 만든다 등이었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그걸 다 하기 때문에 답을 고르지 못하는 걸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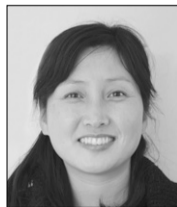
마음이 흐뭇했다. 1,2교시를 묶어서 하고 우유 급식시간에 적어도 30분씩을 노는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참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았다. 5학년, 6학년이 복식 수업을 하는 교실 안에서 아이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형제가 없는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꼭 붙어다니며 깔깔대며 노는 것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인원수가 작은 만큼 한 아이, 한 아이가 소중하고 우리는 어느새 내 아이만의 엄마가 아닌 전교생 21명의 엄마가 되어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봄방학 기간 동안에 학원을 다니지 않아 무료해지는 아이들을 위해 오전 시간을 엄마들이 학교에서 돌아가며 영어, 숲 해설, 환경 게임, 딱지 접기, 노래배우기 등으로 일주일간 캠프를 열었다. 선생님들의 전적인 협조 아래 엄마들과 아이들이 신나게 놀았던 시간이었다. 그 일을 계기로 아침 9시부터 30분간 매일 아이들과 영어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영어 열풍 속에 상대적으로 늘 기죽어 있던 아이들이 영어 골든벨까지 치루어 내는 걸 보고 내심 너무나 뿌듯했다.

아이들은 소규모학교(두레 학교) 예산에 의해 모든 활동과 현장학습을 자비부담 없이 혜택을 받았다. 월요일엔 도예, 화요일엔 댄스스포츠, 수요일엔 농악과 사물을 배우는데 인근 마을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청될만큼 실력이 대단하다. 자랑 같지만 우리 아이는 부 상쇠로 팽과리를 쳤다. 캐나다에서 놀러있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목요일엔 플룻을 배우는데 악기 구입을 학교에서 다 해주는 걸

보고 놀랐다. 금요일엔 영어를 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는 건 여느 큰 학교처럼 돈을 내고 신청하는 몇몇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교생이 모든 활동에 다 같이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서 5시까지 보내는데 엄마들은 아무 걱정 없이 하루 종일 아이들을 학교에 맡겨놓는다.

요즘처럼 부모가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때에 도학의 예는 현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도학 아이들은 언제나 손톱깎기를 가져온 엄마에게 자연스레 손을 내밀고 손톱을 깎는다. 점심 시간에 시간이 되는 아빠들은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야구를 하느라 본인들이 더 신나한다. 합동체육 시간에 선생님들이 만들어주는 대나무 낚시대에 직접 지렁이를 잡아 끼우고 개울에서 낚시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인성이 자라는 게 피부로 와 닿는다. 아이들이 배우는 창의성과 자율성도, 학부모와 교사의 긴밀한 연계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느낀다. 우리 가족이 고성군에 오면서 얻게 된 행복의 시작에 바로 ‘학교’가 있었음을 지면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강성희 시민기자 약력

- 고성 출신
- 속초여자고등학교 졸업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현재 고성지역 초등학교 영어강사

신묘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다.

올해 뭘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만 같다. 그동안 밀어두었던 숙제를 한꺼번에 해야 할 것 같고, 답답하고 불행했던 기억을 말끔히 씻고 새로운 희망과 미래로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곁에 왔다는 느낌도 든다. 아마도 그것은 누구든 새해 새날을 맞는 설렘일 것이다.

신묘년 새해엔 그 박찬 감동과 설렘이 우리 모두에게 북물처럼 왔으면 좋겠다.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의 현실이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다.

우선 국내의 정세가 그리 간단치 않다. 북핵6자 회담이 그렇고, 미·중·러·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숨 고르며 새날 기대

지정학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강원도 최북단 접경지역이며, 동서남북교통망의 변방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제한으로 지역사회 발전이 늦고, 농·어업 등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산업구조상 일자리가 없어 인구감소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2008년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 소식도 지금까지 감감하고 국제금융 대란과 세계경제 불황으로 시작된 지역경기

침체의 회색 또한 녹녹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무력도발사건은 금강산유로관광의 재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작은 희망조차 송두리째 앗아갔다. 그리고 연이은 구제역파동과 AI 발생으로 매서운 한파이상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숨을 고르면서 새날을 기대한다.

포구마다 북적거리는 사람들과 비릿한 생선냄새로 넘쳐나고, 금강산관광버스가 도로를 질주하고 아름다운 경승지마다 탐방객들이 넘쳐나 지역주민 모두 태평성가를 부르며 신명나게 일하는 희망찬 모습을 보고 싶다.

새날 새아침에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할 새로운 지역신문의 탄생을 축하한다.

기실 대중매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

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의미하며, 책,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대중매체는 우선 '광고'를 통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여러 사실을 알림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중요한 정치적 이슈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누구나 보편적인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매체는 신속·정확하게 대량의 정보를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고, '문화'라는 개념을 대중적으로 보급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분별한 광고 등으로 과소비를 조장하고, 폭력성, 선정성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문화의 획일화 현상을 유발시킨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과연 우리 지역신문은 어떤 존재이어야 할까?

지역주민들에게 사건 또는 사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달하고 사건과 정보를 논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며 그에 따른 여론형성과 갈등해소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사회조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사회적 조정기능과 전통이나 규범 등의 전수는 물론, 공통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공동체 의식과 동질감 유발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한다.

신선한 아침 공기 같은 신문

신선한 아침 공기와 같이 우리의 해맑은 정서와 감성을 담아내는 용기그릇이 되고, 그늘진 사회를 보듬어 더불어 사는 오두막의 따뜻한 사랑방이 되고, 민주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초록빛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론직필을 통해 우리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올곧은 우리 심성의 산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선국 칼럼위원 약력

- 고성태생
-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졸
- 강원공무원문학회 동인
- 한국문인협회 회원
- 고성문화포럼대표
- 고성군 죽왕면장
- 편저 : <고성지방의 옛날이야기> 등 다수

이선국 칼럼

시인, 죽왕면장



고성신문 창간에 즈음하여

미술치료에 대한 이해 <1>

“그림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최금란 칼럼

교육학박사, 강원미술심리치료센터 소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술을 아름답게, 보기 좋게,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대한다.

하지만 미술치료에서는 보기 좋은, 잘 그린 그림을 원하는 미술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는 미술표현 행위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즉,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미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활동을 통해 각자 나름대로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승화되는 과정이 진정한 미술치료의 의미라 하겠다.

미술활동 통해 카타르시스 느끼는 과정

미술치료는 미술이라는 시각매체를 통해 스스로 억제, 상실, 왜곡된 부분을 발견하고 미술의 상징성과 전체성을 통해 통합 시킴으로써 자신의 문제와 인격을 인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이다.

특히 미술은 언어표현이 익숙하지 못한 아이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언어보다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데 더욱

편안한 도구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미술 자체가 정화기능을 가지고 있어 손상되고 불안정한 감정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술치료는 자기 자신이 미술활동이라는 치료활동에 스스로 참가해야 하는 능동적인 치료방법이다. 즉, “주사를 맞아 준다고 해서 환자의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과 같이 미술치료는 내면의 작업이기 때문에 대신해 줄 수 없으며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을 해야만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미술치료는 대부분 두 가지 범주 속에 속하는데, 첫 번째 범주는 미술의 창의성에 이어져 있다는 것으로, 이런 관점에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의 치료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술치료의 두 번째 정의는 상징성으로, 정신분석적 미술치료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표현하고 있고 그 그림에는 각기 특정한 의미의 상징이 있다고 본다.

소위 이러한 접근법을 미술심리치료라

고 하며 진단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결과보다는 창작과정 중시

“미술치료는 내면의 표현이다.” 이 말은 미술치료와 일반 미술이라는 영역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의로서 미술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부적인 면모만을 본다면 일반 미술활동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술치료와 미술은 그 목표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 미술치료에서는 인격성장이라는 큰 목표가 있고 결과보다는 창작 과정의 태도를 매우 중요시한다.

이처럼 미술치료는 미술기교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미술치료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외부세계에 대한 것보다는 내담자 자신의 내면에 이미지

를 표현하고 발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까운 사람의 갑작스런 사망, 교통사고 등과 같은 명백한 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시험공부, 은근한 따돌림, 선생님과 부모님의 무지에서 비롯된(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그런 소소한 정신적 외상을 처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다.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대처하는데 있어서 미술심리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

◇최금란 칼럼위원 약력

- 관동대학교, 한중대학교 외래교수
- 경동대학교 평생교육원 미술심리지도사 강사
- 한국상담학회 강원지회 이사,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위원
- 청소년지원센터 실행위원, 쉼터, 성폭력상담소 전문위원
- 한국미협 정회원, 속초미술협회 감사
- 미술치료사(KATR), 1급가족상담사
- 1급놀이치료사, 1급군전문상담사
- 교원직무연수 및 1급전문상담교사연수,
- 미술치료특강 다수
- 전 동우대 유아교육학과 겸임교수, 영동대, 한국방송통신대 강사
- 강릉대학교 평생교육원 미술심리지도사 강사
- 현재 교육학박사(강원미술심리치료센터 소장)
- 현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상담심리) 외래교수

사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경과한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지방자치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몇 가지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는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사용과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했거나 도왔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논공행상식의 부적절한 인사행태에 대한 것들이다. 특히 선심성 예산사용의 경우 지방의회를 통해 어느 정도 거를 수 있지만,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사실상 아무도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의 핵심이 되어왔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의제인 '공정사회

조성'을 위한 '중앙 및 지방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2011년 새해 감사에서는 단체장의 '내 사람 심기' 인사발령 행태에 대해 집중 감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참

'내 사람 심기' 인사 개선해야

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최근들어 자주 거론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란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운다는 의미"라고 한다. 정부가 '내 사람 심기' 인사를 문제시하고 나선 것도 바로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못한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 체계와 국민 정서는 '공무원의 중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편에 선다는 것은 불법이며 적절치 못한 행위

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선거 이후 논공행상식의 인사발령이 이뤄진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중앙 정부의 경우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민들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정부는 최대한 자신들의 성격과 가까운 인사를 등용하기 마련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코드인사'라는 뜻은 나쁜 의미로 받

아들여졌지만, 지금은 당연히 여기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다양한 인재풀이 형성되어 있는 중앙 정부와 달리 500여명 안팎의 공무원들 안에서 인사가 이뤄지는 소규모 자치단체의 경우 '코드인사'를 많이 할 경우 행정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능력이 부족한 데도 요직에 발탁되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저해시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지금의 고성군정이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 사람 심기' 인사 행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새해부터 이 부분을 집중 감사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한번쯤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하겠다.

우리 고성언론문화의 새로운 창건에 즈음하여 관심이 있어, 자진 방문해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된다. 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엇을 도우려는 마음, 동정이 가는 심정, 힘을 더하겠다는 본심에서 우리나라 실행에 이르렀다.

동해의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이글거리는 태양, 백두·금강산줄기의 정기 따라 만물상이 펼쳐진 금수강산 우리 고장, 기쁨진 복된 땅으로 가꿔가야 할 과제가 눈앞에 있다. 이 수려한 경관의 보전·개발, 균형발전을 꾀하여 결실로 꽃피워 모든 이가 선망의 고장으로 찾아드는 터전으로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다. 조상의 얼을 생각하기로 한다.

힘을 더하겠다는 본심 우려나

문자 없는 선사시대 (유적 : 주거지, 조개무지, 분묘, 유물 : 석기-타제, 마제, 도끼, 족, 검, 창, 토기 : 빗살무늬, 무문토기, 후속, 붉은채색)를 거쳐, 역사시대(금석병용, 청동기, 철기)에 이르기까지 5000년 전이고 4~50만 년 이전의 긴 선사시대였고, 4대문명(나일, 유프라테스, 인더스, 황하유역)과 기타문명으로 변천하였다.

언어는 퉁구스족에 근간을 두며, 선주지관계로는 한족(韓族) 몽고족 터키족 즉 UralAltaic어족 계에 속한 예맥족(濊貊族)으로서 고조선 한나라인 맥국(貊國)이었다. 위치는 송하강 흑룡강 압록강 유역에 형성된 강원·함경에 걸쳐 활동한 선민(先民)임과 동시 한민족의 근간으로서 자긍심을 갖는다.(삼국사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참조)

사적(史蹟)을 보면 유서 깊은 우리 고장

금강칼럼

김종식
객원 논설위원



찬란한 고성언론 창건에 동참하자

이다. 우선 기풍(氣風)에 따라 고성문화 복지발전에 조건 없이 맡겨진 일이나 일을 찾아야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본 고성언론문화 창건을 위한 윤승근(尹承根) 대표의 어려운 여건 중에도 고귀한 발상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격률로 받아들이는 글로 '행백반어구십'(行百半於九十)이라, 의미심장(意味深長)한 말로서 백리 길도 구 십리가 반이라 하는 말은 시작도 마지막도 어렵다는 말이다. 이솝 이야기 중 토끼의 방심, 천 리길도 한걸음부터 용기 있게 시작하라는 뜻이다. 작심삼일(作心三日) 등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는 명언이다.

셋째로 화기애애(和氣霽霽) 명랑한 사회를 조성하는 일이다. 우리고장 고성은 127마을마다 웃음꽃이 메아리쳐 생산적 복지로 이어져 살기 좋은 고성 위대한 고성을 만든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사람 모인 곳에 인정 있고, 돈 있고, 음식 있고 물 건 있고 거래가 있다. '우자천려필유일득(愚者千慮必有一得 : 어린 우둔한 말 중 쓸

모 있는 말 하나)'이라는 말이 있으니 보감 실천하라.

넷째로 생산적 생업에 종사하는 일이다. 오순도순 살아보자는 것은 알뜰살뜰 농·공·축·어·상(農工畜漁商) 30,190인이 어우러져 고성신문 정론에 이바지 한다는 것. 건전한 반성, 착실한 생활정보 홍보, 전국 넷트워킹을 통하여 우리 모두 주인으로서 자진 주인이 된다.

다섯째로 이 고장 주인(우리의 일군 467인과 주민)은 우리이다. 우리는 주인으로서 일을 다하여 풍요롭고 즐거운 나의 집을 건설하겠노라. '불사이불유식원(不仕而不有食愿)'이란 아무튼 생산적 일은 반드시 하여야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우리 지방에 알맞은 생업을 신장 해 나아가기 위하여 산 바다 바람, 맑은 물 호수 바닷물 경관을 대상으로, 우선 대학을 중심이 되어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여섯째로 보전·개발과제이다. 우리의 손으로 조화롭게 가꿔 나가는 일이다. 끝으로 행운의 열쇠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다. 가정의 건강·안락·평안, 국가사회의 안보·평온·평화 Road Map에 따라 복지를 이룩하는 것이다. '복희기망비분이득래(福喜冀冀 非分而得來)'라 했거늘 복은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은 행복바람이 불어온다는 말씀. 희망·기원이 이뤄져 성취감을 갖게 된다는 것.

화기애애 명랑한 사회 조성

우리 다함께 하는 격을 새기자! '위선자는 천보지복이요 위불선자는 천보지화이니라(僞善者 報之福 僞不善者 天報之禍)', 선과 악의 선(緣)은 행복이 드나든다는 뜻이므로 경계선을 넘나들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 공자말씀은 화복은 하늘이, 한소열은 후대에 기꺼이 선을 물려주는, 장자는 한시라도, 태공은 무슨 일이든, 마원은 평생을, 사마온공은 많은 덕을, 경행록에서는 은혜와 의리를 베풀라는 금언을 우리에게 남겼으니 고운 마음에서 행복을 얻게 된다 하겠다.

우리함께 고성언론문화 창건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동참합시다. 일귀내어 새 역사를 창조합시다.

김종식 객원논설위원 약력

- 성균관대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석사)
- 동의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 취득
- 관동대학교 법정대학 강사
- 경동대학교 겸임교수
- 동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부학장)
- 황조근정훈장 수훈
- 현재 경로당 초청강사
- 저서 : <축소 사회복지 이해의 편람> 등

◇편집국에서

○... 유난히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지만, 계절도 인간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는 것 같다. 고성지역 발전을 위해 큰 일을 해보자는 취지로 두어달 남짓 준비한 끝에 마침내 첫 작품을 내놓았다. 뿌듯함과 함께 독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낀다.

○... 며칠 뒤면 설날이다. 학창시절 은사께서 명절을 앞두고 학이 오래사는 이유를 위장을 반만 채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 과식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옳은 말이지만, 먹고 살기가 힘든 서민들에게는 낯설게만 다가올 것 같아 착잡하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성신문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녹색성장, 통일고성”



일출



명태건조시설



해양박물관

2011년 신묘년 새해에는 군민의 지혜와 저력이
결집된 풍요로운 고성, 품격 높은 고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성군
GOSEONG-GUN